

3-18

해안 야간경관 명소 조성

관리분야	문화관광				추진상황	정상추진(사전절차 진행)					
사업구분	성격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			○		○	○		5,000백만원
사업주체	국가	도	자체	민간	사업기간	2022 ~ 2026			팀 장 이창현(☎1808) 담당자 노윤찬(☎1255)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관련부처	충청남도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 및 테마시설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불리한 관광 여건을 극복하고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서부지역 해양관광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조성
- 사업대상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 어사리 노을공원
- 사업내용 : 야간경관 명소 조성 L=3.0km
- ※ 주요거점 : 남당항~서측방파제~남당노을전망대~어사리노을공원

□ 그동안 추진실적

- 2022. 5. : 기본계획 수립
- 2022. 7. :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선정
- 2022.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3. 1. : 서부해안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사업 추진계획 방침
- 2023. 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23. 3. ~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23.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24. 1. : 사업보고회 개최
- 2024.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4. 4.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 2026. ~ : 관광 홍보 추진

□ 공약달성 확인지표

구분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후
계획	해안 야간경관 명소조성	공정률	100	10	20	50	100	-	-
실적			100	10	20				
달성				달성	달성				

□ 군민 소통 현황

(단위: 회)

설명회·공청회	민간전문가 등 자문	언론·방송보도	설문조사	기타
1	1	3	3	3

□ 증빙자료 첨부 (조감도)

홍취량 산생빛
문안속
기쁨으로 살게!
서부해안에 빛나는 희망의 물결이 힘차게 날아오르다
(취량) (광원)

Sunset·Sand·Sea
어서리 노을 공원에서 노을 빛을 바라보고 - 빛의 길을 따라 거닐며
- 홍성의 푸른 바다를 느끼는 서부해안에 빛나는 희망의 빛 물결을 연출한다

Design Motive

- 01 노을빛 희망**
(노을빛 노을공원 - 노을공원)
자연의 아름다움에 스며드는
홍성의 푸른 노을빛
- 02 황금빛 희망**
(어서리 - 노을공원 인근 - 취량리)
주변의 아름다움에 스며드는
홍성의 황금 노을빛
- 03 바다빛 희망**
(서부해안 - 취량리)
공간의 아름다움에 스며드는
홍성의 푸른 바다빛

시업개요

1. 사업명 : 서부해안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사업(관광디자인 및 이벤트 구축)
2. 사업위치 : 홍성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차안거리 51 - 서부면 남당항로 171
3.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4. 사업비 : 60억 원(도비 25억 원, 군비 35억 원)
5. 사업내용 : 야간경관 명소 조성 L=3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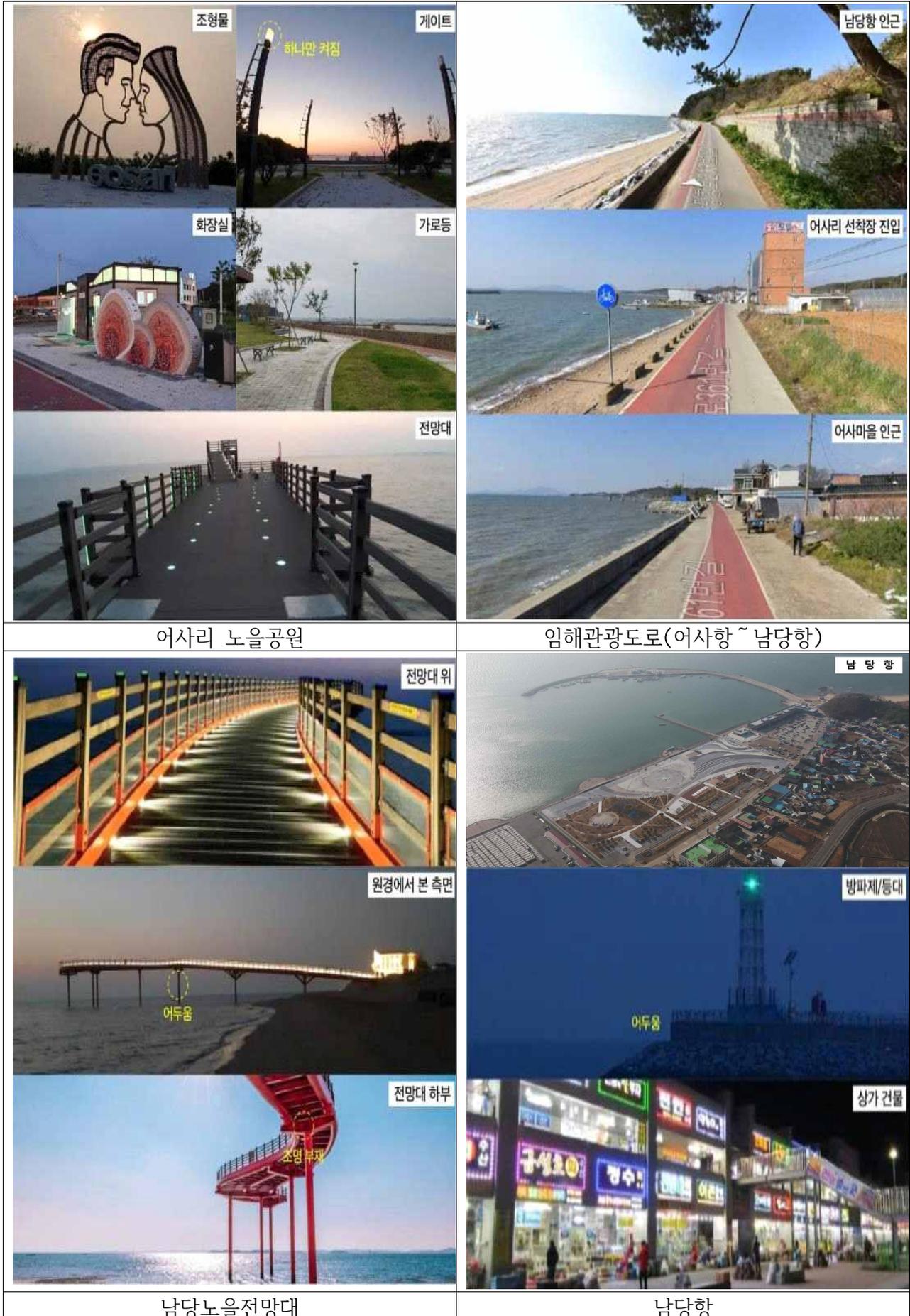
7 도로 선형 개선 및 확성 L=1.2km

01 Thema : 붉은 물결 빛 (Sunset)
어서리 노을 공원 - 어서어항
문주조명 / 달, 별 오색 / 디자인 불라드 / 여자 간접조명 / 이펙트고보

02 Thema : 황금 물결 빛 (Sand)
임해관광도로 - 남당 노을 전망대
디자인 불라드 / Line 경관등 / 이펙트고보 / 포토존 / LED 투광기 / 발명 조명

03 Thema : 푸른 물결 빛 (Sea)
남당항 방파제 - 해안광장
LED 경관등 / 이펙트 고보 / 프로젝터 (영상) / LED 미디어 글라스 / 포토존

□ 증빙자료 첨부 (현장 사진)



중도일보

2023년 02월 03일 (금)
14면 지역

홍성 남당항,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 도약

사업비 683억 집중투자- 해양공원·어항개발사업 등 구축 박차
관광개발팀 신설 전략 구성- 어사리 노을공원 등 70억 국비 확보

홍성군 대표 관광지인 남당항이 명품 해양관광지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홍성군은 대하, 새조개, 바다 송어 등 신선한 해산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남당항에 사업비 683억을 집중 투자해 해양공원과 축제광장 조성,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갖춘 맛과 멋을 겸비한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남당항 해양공원과 축제광장(가칭)은 사업비 130억을 투자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체험형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서해안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보며 즐길 수 있는 해양권 최초의 네트 어드벤처(그물놀이 시설)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남당항을 찾오는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5만5000㎡ 규모의 공원과 광장을 조성했고, 올해 5월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트릭아트 존 조성, 상징 문자 조형물, 주요 진입도로 및 인도 확장 등 놀이 시설과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양공원과 축제광장은 올해 개장할 예정이라며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남당항 주변에 매력적인 테마 시설을 도입해 새로운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개장 시기에 맞춘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전국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남당항은 뛰어난 먹거리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높은 인지도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해산물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 특성상



홍성군 대표 관광지 남당항 항공촬영

여름철 비수기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은 기존 관광 개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관광개발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전략 개발사업을 구상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선

정돼 총 70억 원 예산을 확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을 통해 인근 관광자원인 남당항, 어사리 노을공원과 남당 노을전망대 등 주변 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야간 관광객 유치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홍성·김석우 기자

29.0 X 15.7 cm

충청타임즈

2023년 02월 03일 (금)
16면 종합

홍성 남당항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 탈바꿈

봄부터 물·그물놀이 시설 개장
해양공원-축제광장 완성 눈앞

홍성군 대표 관광지인 남당항이 명품 해양관광지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은 대하, 새조개, 바다 송어 등 신선한 해산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남당항에 사업비 683억원을 집중 투자해 해양공원과 축제광장 조성,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갖춘 맛과 멋을 겸비한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의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남당항 해양공원과 축제광장(가칭)은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체험형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서해안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해양권 최초의 네트 어드벤처(그물놀이 시설)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남당항을 찾오는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5만5000㎡ 규모의 공원과 광장을 조성했고, 올해 5월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트릭아트 존 조성, 상징 문자 조형물, 주요 진입도로 및 인도 확장 등 놀이 시설과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남당항은 뛰어난 먹거리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높은 인지도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해산물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 특성상 여름철 비수기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은 기존 관광 개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관광개발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전략 개발사업을 구상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선정돼 총 70억원의 예산을 확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 관광자원인 남당항, 어사리 노을공원과 남당 노을전망대 등 주변 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야간 관광객 유치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용록 군수는 "남당항이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홍성 오세민기자

ccib-y@ccitimes.kr

20.6 X 12.3 cm

금강일보

2023년 02월 03일 (금)
13면 지역

홍성 남당항 명품관광지로 변신

683억 투입 관광인프라 확대
물·해양공원·축제광장 개장 등
관광객 연 100만명 이상 방문
서해안 대표 체험형 관광지 도약

홍성군 대표 관광지인 남당항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거듭난다. 홍성군은 올해 남당항에 683억 원을 투자해 해양공원과 축제광장을 조성하고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 탈바꿈사업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한 남당항 해양공원과 축제광장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체험형 음악분

수를 설치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권 최초의 네트 어드벤처(그물놀이 시설)를 도입했으며 관광객들이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5만5000㎡ 규모의 공원과 광장을 조성했다. 해양공원과 축제광장은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올해 봄 개장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트릭아트 존, 상징 문자 조형물 등 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요 진입도로 및 인도를 확장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남당항을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 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공

모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70억 원을 투자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남당항과 어사리 노을공원, 남당 노을전망대 등 주변 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야간 관광객 유치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용록 군수는 "추진 중인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이 단계별로 완성되면 남당항은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안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ccibee@jgbo.com



홍성 남당항 항공촬영

29.0 X 15.7 cm